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20대 들어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만의 세계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더군요. 군 입대 후에는 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깨달음도 있었지만 곧 군대 내 계급차로 인한 갈등, 부조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면의 물음이 시작됐고 그 답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불교가 저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알음알이로 알아가던 불교 사상이 혼자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과거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또 고민을 이렇게 차분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자세와 용기는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Q 육법공양이 무엇인가요?

A 육법공양이란 불교의 큰 행사의 식중 하나인 전통 의식입니다. 보살행을 닦아서 대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교법으로 부처님께 여섯 가지 공양을 올리는 것을 육법공양이라 합니다.

공양물은 향, 등, 차, 꽃, 과일, 쌀 등 6가지입니다. 향 공양은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우 부처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이 우주법계 고투고투 번지기를 기도하

살아가면서 제 진심을 누군가에게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면을 성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랑받고 싶지만, 혼자만의 세계가 너무 깊습니다. 스스

살면서 제 진심을 꺼내보인 적 없는 외톨이예요 먼저 마음 열고 다가가면 상대도 다가옵니다

로를 속이고 살아온 죄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과감, 강박감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가에 뜻을 두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A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 온 것에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부적응은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정과 사회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밝은 희망이 보입니다.

내담자는 이 시대를 사는 평범한 젊은이입니다. 자신을 하찮게 보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지하고 깊은 사고를 하는 내담자는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부모님과 주변의 친구에게도 마음을 열어 먼저 다가가세요. 처음이 힘들 뿐입니다. 누군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그러면 상대도 다가올 것입니다.

현실과 종교와의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요? 불교에 관심도 많으시고 더군다나 출가에 뜻을 두고 계셨다고 하니 바른 선지식을 만나 바른 불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는 것입니다. 행은 해탈향(解脫香)이라고 해서 자신을 태워 주위를 맑게 함으로 회생을 뜻하기도 하고 화합과 공덕을 상징합니다. 등 공양은 반야등(般若燈)이라고 하며, 지혜와 회생·광명·찬탄을 상징합니다. 밝은 등불 총총이 밝혀 대천세계 팔고루 비취 지혜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차 공양은 사바에 찌든 죄업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망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 중생의 마음을 수정 알처럼 맑고 밝게 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차는 갈포다(甘露茶)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꽃 공양은 부처님을 따르는 지극한 마음이 꽃향기처럼 대천세계 두루두루 퍼져서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해서 수행을 뜻합니다. 과일은 보리과(菩提果)로 깨달음입니다. 쌀은 선열미(禪悅米)로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합니다.

불자로서 수행과 공덕을 결부하면 올바른 수행이 아니므로 언제나 바르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 정성으로 육법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박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회)

군대에서 보리의 종자 뿌려요

자비법당 탐방 육군 호국충절사

활기창하고 건강한 남자들이 우글대는 곳을 뵈려면 단연 군대를 빼놓을 수 없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간 늘름한 청년들이지만, 아이돌 걸 그룹이나 초코파이에 열광하는 아지는 옛된 모습이다.

육군 제2258부대 15연대 호국충절사 강정기 지도법사의 눈에는 특히나 장병들이 아들같이 느껴져 더 애뜻하기만 하다.

강정기 지도법사는 6여 년 동안 충절사에서 매주 빠짐없이 일요법회를 진행해 왔다. 강 법사는 항상 군부대라는 특수성에 맞춰 불교의 법음을 장병들에게 전해 주려고 노력했다.

"항상 군에 맞는 법회를 진행하려 노력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부처님의 법을 알고 사회에서 그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강정기 법사는 장병들을 위해 뭔가 더 특별한 법회를 마련하고자, 고심 끝에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천안함 희생장병 및 15연대 충절장병 위령재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재에는 강정기 지도법사, 법산 스님, 덕화 스님을 비롯한 4명의 스님들이 함께 참석했다.

법산 스님은 현재 경기도 금촌에서 작은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우연히 강정기 지도법사와 인연이 닿아 지금까지 군부대 법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법산 스님은 "장병들을 위해 항상 뭔가 특별한 법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 이번 현충일을 맞아 이렇게 위령재를 봉행하게 됐다"며 "아는 스님들끼리 선우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선우회 회원이신 스님들이 선뜻 이번 법회에 함께 참석해주시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령재는 자주 볼 수 없는 불교의식을 장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안함 희생장병 및 15연대 충절장병 위령재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장병들은 법산 스님의 지도에 따라 법회의식을 진행했다. 여느 때와 다른 법회의식에 이날 법회에 참석한 30여 장병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신기하다는 반응들이었다. 이날 위령재에는 장병들과 함께 우성제 대대장, 강기덕 주임원사도 함께 법



육군 호국충절사는 현충일을 맞아 천안함 희생 장병 및 15연대 충절장병 위령재를 봉행했다.

천안함 희생장병 및 15연대 충절장병 위령재 봉행 불교에 친숙해지도록 사상과 기초교리 강좌에 주력

회에 참석했다.

우성제 대대장은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나서, 부대 측에서 이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고 싶었다. 법산 스님과 강정기 법사님이 나서서 법회를 진행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 대대장은 "법회에 자주 참여하고 싶어도, 병사들이 내가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잘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기회에 법회에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더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종교적 행사가 병사들의 정신적 교화에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산 스님은 "종교행사를 반대하는 부대들도 많은데, 의외로 대대장님께서 지지를 많이 해주셔서 활동을 하는데 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도 제2258부대 15연대에서는 장병 150명이 제등행렬을 할 정도로 부대에서는 적극 지원했다. 또한 휴가증을 상으로 걸고 <

반야심경> 암송대회를 열어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한 노력의 대가인지 법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이 되니, 저한테 천원을 주며 등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병들이 있었다. '무슨 돈이 있어서 등값을 주느냐'고 했더니 그냥 달면 좋을 것 같다며 정성으로 천원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법산 스님은 "사실 군부대라는 곳은 불교를 완전히 알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군 생활 당시 장병들에게 보리의 종자를 심어주고, 각자 사회에 나갈 때 그 씨앗을 틔우도록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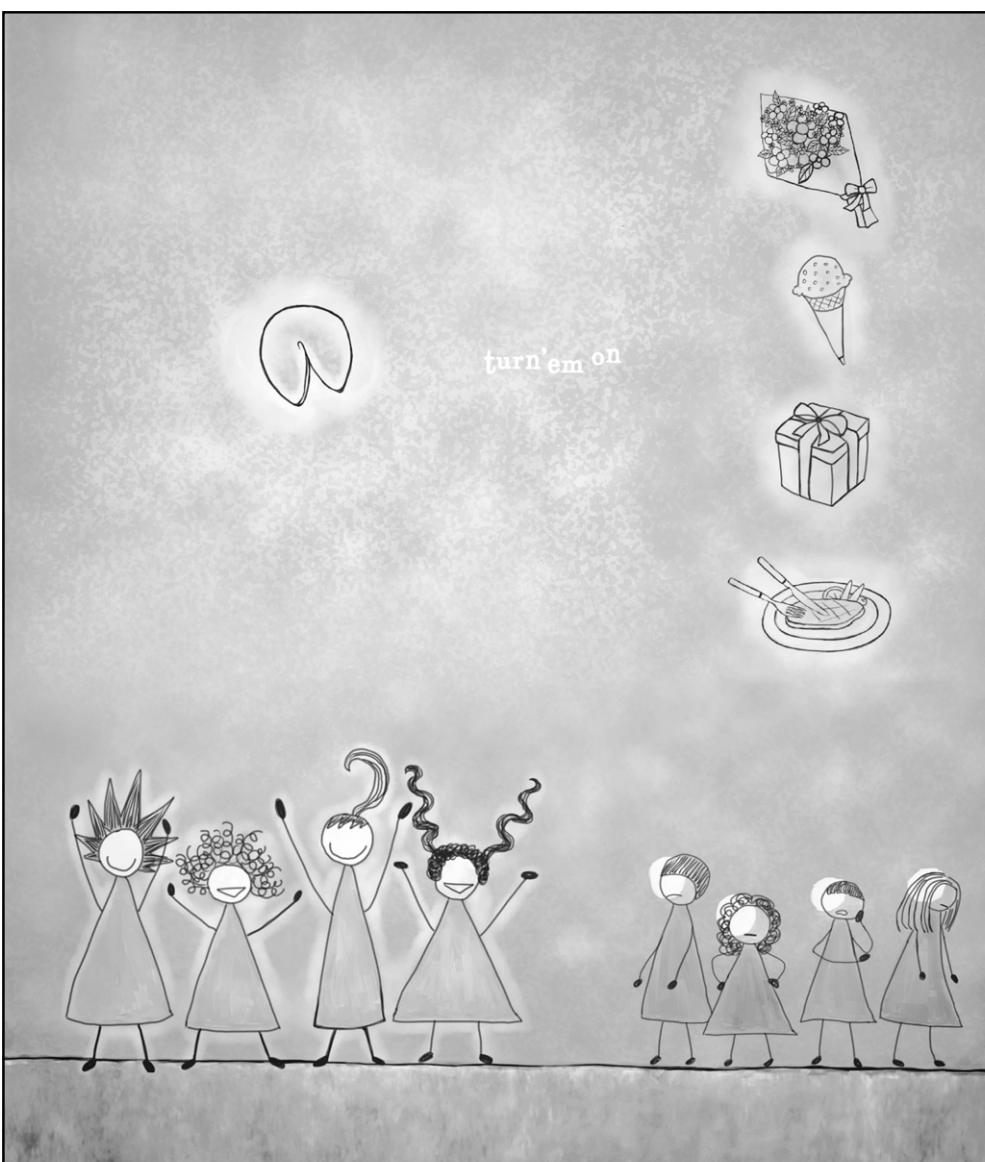
스님은 "다음 법회 때에는 내가 피자를 사오마"라고 장난삼아 말했다며, 글썽하게 웃었다. "한 끼 많이 먹고, 공부할 시기인데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과자나 떡 하나를 더 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회에 참석한 스님들과 장병들은 평소보다 더 푸짐했던 공양물을 함께 나눠 먹으며 이날 법회를 마무리지었다.

강정기 법사는 "이번 법회는 군부대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이 좀 더 현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불교가 미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몫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하게 군법당 포교사를 맡게 돼, 지금까지 법회를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 군포교의 일이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장병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회와 함께 여러 사상과 불교의 기초교리를 더 많이 알려주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What is Buddha Cookie!!

법과 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